
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	2021년 11월 9일(화) 총 4매		
담당 부서	육아지원과	담 당 자	• 육아지원담당 • 담당자	윤숙진 ☎440-2956 공순옥 ☎440-2957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엘에이치인천본부, 인천시와 아이돌봄 '맞손'

- 인천시와 엘에이치인천본부, 공동육아시설 '아이사랑꿈터' 설치 업무협약 체결 -
- 엘에이치, '21년 3개소, '23년까지 10개소 무상제공으로 운영비 7억여 원 절감 -
-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 및 양육환경 개선 기대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11월 9일 ‘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공동체 조성 및 양육환경 조성’을 위해 LH(한국토지주택공사) 인천지역본부(본부장 박봉규)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.

「아이사랑꿈터」는 만0~5세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집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동육아시설로, 인천시가 민선7기 「보육특별시, 인천」 구현을 위해, 육아정책 패러다임을 기관육아에서 ‘공동육아·공동돌봄’으로 전환하면서, 첫 번째로 내세운 사업이다.

2019년 남동구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7개 구군에 24개소를 운영 중

이며, 연말까지 9개소, 내년 상반기에는 3개소 개관을 목표로,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특히, 엄선된 보육전문인력이 운영하고, 육아전문기관에서 개발한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이사랑꿈터는 이용 시민의 94%가 ‘매우만족’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, 시설 요구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기도 하다.

한편, 시는 2023년까지 100개소의 아이사랑꿈터를 확충하기 위해, 공공기관 유휴공간, 공동주택 주민이용시설, 폐원어린이집 활용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. 일부 군·구에서는 도시 간 인구격차, 낙후된 원도심의 장소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, 이번 LH와의 업무협약이 아이사랑꿈터 확충 사업에 큰 동력이 될 전망이다.

LH인천지역본부는, 이번 협약을 통해, 인천시 전역에 「아이사랑꿈터」 확충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‘중구 신흥동 1가 38-28번지’ 외 2개소를 포함해, 향후 2023년까지 10개소의 임대주택을 2031년까지 10년간 무상으로 공급하게 된다.

인천시는 이를 통해 꿈터 운영비 약 7억여 원을 절감하는 대신, 양질의 가정육아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며, LH인천지역본부와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「아이사랑꿈터」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.

조진숙 시 여성가족장은 “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”라며 “협약 체결에 함께 해 주신 LH인천지역본부에 감사드리며, 앞으로 인천이 ‘아이키우기 좋은 도시’로 거듭나는 위해,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사진



<남동구 1호점>